

가구공룡 압박 속 '月 10억·전국 1위' 대리점신화 쓰다

〈이케아 광명점〉

〈1월 계약 건〉

〈대리점 계약기준〉

HANSSEM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구회사 대리점을 물려받아 전국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아들이 화제다.

'청출어람'이다.

한샘인테리어 경기 안양평촌점의 김동혁 사장(37)이 그 주인공.

1일 한샘에 따르면 김 사장의 안양평촌점은 지난 1월에 계약 액수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을 기록하며 전국 80여 개의 한샘인테리어 대리점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김 사장 역시 매장을 잘 키워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꿈이다.

안양평촌점의 '1개월 10억 계약'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인 광명에 국내 최대의 외국계 가구 브랜드 매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년 전 해당 매장이 들어설 때만해도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경기 평택에서 자신의 매장을 운영했던 김 사장은 평택 매장을 접고 2015년

한샘인테리어 경기 안양평촌점

아버지에게 이어 받고 '청출어람' 차로 20분 거리에 이케아광명점 우려속 '대형화'로 지역 랜드마크

박람회·커뮤니티·카페 등서 발품 영업사원 교육·AS 아낌없이 지원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안양평촌점을 물려받아 한 곳에만 집중한 터여서 자칫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김 사장의 부친은 온라인 판매 등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대형화'에 집중했다.

2003년 당시 120평 규모였던 매장을 180평(2007년)→240평(2009년)→500평(2013년)으로 점점 넓혔다.

그러면서 매장엔 소파, 침대, 서재 등 가구부터 생활용품까지 집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하며 지역의 대표 매장



한샘인테리어 안양평촌점 김동혁 사장.

으로 탈바꿈시켰다.

김 사장은 "당시 매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께서 '가구 매장 대형화'라는 추세에 맞춰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주변에서도 매장을 대형화할 것은 권유했었는데, 한샘 본사의 도움을 받아 매장 전사와 상품 구성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새로운 매장에선 이전보다 다양한 가구를 더 많이 전시

할 수 있어 인근에 초대형 매장이 들어와도 경쟁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김 사장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입주 박람회 찾다니며 고객들을 만났고 입주 커뮤니티 카페를 활용해 매장을 홍보했다. 본사에서 영업 교육이 열리는 날이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한샘 본사의 상관담당자는 애프터서비스(AS)건 등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입주 소식을 빠르게 파악해 영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가운데 한샘은 '물려주고 싶은 대리점'이라는 운영 방침을 바탕으로 제2의 안양평촌점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샘이 지난해 거둔 1조9738억원의 매출 가운데 B2C 부문 매출 중 절반 이상을 대리점에서 거둬 정도도 대리점 부문은 회사 성장과도 직결된다.

한샘 대리점사업부 관계자는 "한샘이 국내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펼쳐진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순히 수익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대리점 사장이 '차라ں스럽게 물려주고 싶은 매장'이라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업사원 교육, 마케팅, AS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집을 새집으로 바꿔보세요'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실제 아파트 공간을 똑같이 연출한 가구 매장 한샘 디자인파크를 찾은 고객들이 인테리어를 둘러보고 있다. 한샘 디자인파크 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방과 거실, 부엌, 욕실 등이 모두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가구 매장에서 새로 단장할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 연출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민간주도 기술창업 '팁스' 10곳 모집... 1062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 신규 운영사 10여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엔젤투자회사와 벤처캐피탈(VC) 등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로, 창업업에 대한 투자역량·보육역량을 갖추고 보육공간을 구비한 곳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미래형 자동차, 로봇, 이동통신(5G)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투자에 강점이 있는 전문투자사와 코스닥 상장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있는 투자사, 소셜 벤처 육성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투자사에도 가점을 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우편 또는 현장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면평가·현장실사·대면평가등을 거쳐 5월에 운영사가 최종 선정된다.

중기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중기부는 올해 팁스 프로그램에 지난해보다 26.4% 늘어난 10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조스타트업, 부담금 면제 혜택 '5년 더'

창업 3년 미만 제조중소기업 대상 부담금 12개 면제 400억 절감 효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제조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지금과 같이 12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개정, 3월2일부터 시행돼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련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당초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더 늘어난 것이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 부담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4대강 물이용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등이 두루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0개 창업 제조 기업들이 4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82.2%는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답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경남의 한 기업은 2015년 당시 창업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적잖은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500만원을 감면받고 창업초기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은 등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에 경남은행 추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경남은행이 2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에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

대구·광주은행 등 총 10개 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 도입된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도입 이후 34년 동안 대출 10조3000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1만7000여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김승호 기자

"혈액투석 환자 영양, 앱으로 관리하세요"

이대목동병원 류동열 교수팀

동네 병·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의 혈액투석 환자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문적인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사진)팀이 혈액투석 환자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헤스티아'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만성콩팥병과 말기신부전 환자는 위험인자인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10.6%,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투병하고 있으며, 환자수는 매년 8.2%, 진료비는 매년 10.2%씩 증가하고 있다.

혈액투석 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어 철저한 영양 및 식생활 관리가 필요한데, 혈액 투석환자들이 주로 다니는 1·2차 병원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양사가 없는 곳이 많다.

이번에 류동열 교수팀이 개발한 '헤스티아'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식생활 및 증상에



대해 입력하고,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의학 정보를 입력해 주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알려 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상영양사는 환자의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 영양 상태가 나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게 된다.

류동열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헤스티아"를 통해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혈액투석 환자들의 전문적인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 생존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자와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 교수팀은 지난 2월 20일 이대목동병원 의학관에서 양천구 보건소와 혈액투석 병의원의 의료진 및 공동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헤스티아' 시연 및 연구사업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